

■ 1부 오전 9시
■ 2부 오전 11시

“하나님은 영이시니, 예배하는 자가 영과 진리로 예배할지니라.” (요4:24)

인도: 심창보 목사

- *송 영 / 찬 양 대
- *영 광 송 / 1장
- *성시교독 / 36. 시편 90편

주여. 주는 대대에 우리의 거처가 되셨나이다.
**산이 생기기 전, 땅과 세계도 주께서 조성하시기 전,
 곧 영원부터 영원까지 주는 하나님이니이다.**
 주께서 사람을 티끌로 돌아가게 하시고 말씀하시기를,
 너희 인생들은 돌아가라 하셨사오니,
**주의 목전에는 천 년이 지나간 어제 같으며,
 밤의 한 순간 같을 뿐임이니이다**
 주께서 그들을 홍수처럼 쓸어가시나이다. 그들은 잠깐 자는 것 같으며,
 아침에 돋는 풀 같으니이다.
풀은 아침에 꽃이 피어 자라다가 저녁에는 시들어 마르나이다.
 우리는 주의 노에 소멸되며 주의 분노에 놀라나이다.
**주께서 우리의 죄악을 주의 앞에 놓으시며,
 우리의 은밀한 죄를 주의 얼굴 빛 가운데에 두셨사오니,**
 우리의 모든 날이 주의 분노 중에 지나가며, 우리의 평생이 순식간에 다하였나이다.
**우리의 연수가 칠십이요. 강건하면 팔십이라도, 그 연수의 자랑은
 수고와 슬픔뿐이요, 신속히 가니 우리가 날아가나이다.**
 누가 주의 노여움을 알며, 누가 주의 진노의 두려움을 알리까.
우리에게 우리 날 계수함을 가르치사, 지혜로운 마음을 얻게 하소서.

- *신앙고백 / 사도신경
- 찬 송 / 278장
- 대표기도 / (1부) 박영미 전도사 (2부) 이상혁 장로
- 헌금봉헌 / 51장 (1절)
- 성경봉독 / 시편 55:1~8
- 찬 양 / (2부) 시온찬양대
- 말 씬 / **“주님을 신뢰하라!”** / 심창보 목사
(Trust in the Lord)
- 찬 송 / 542장
- 교회소식 / 인도자
- *파송노래 / 620장 (1절)
- *축 도 / 심창보 목사

*표시는 자리에서 일어납니다.

■ 오후 3시 30분

“기쁨으로 여호와를 섬기며, 노래하면서 그의 앞에 나아갈지어다.” (시100:2)

인도: 정인종 목사

- 찬 송 / 292장, 540장
- 기 도 / 윤진태 안수집사
- 성경봉독 / 마태복음 6:1~18
- 찬 양 / 호산나 찬양대
- 말 씬 / **“거룩한 제자의 삶①”** / 정인종 목사

■ 저녁 7시 30분

“오직 여호와는 그 성전에 계시니, 온 땅은 그 앞에서 잠잠할지니라.” (합2:20)

인도: 심창보 목사

- 찬 송 / 304장, 288장
- 성경봉독 / 마태복음 6:19~34
- 말 씬 / **“거룩한 제자의 삶②”** / 정인종 목사

■ 주일~금 새벽 5시

■ 저녁 8시 40분

사무엘하 강해 / 심창보 목사, 정인종 목사

인도 / 심창보 목사

다음 주간 기도

주일 1부	주일 2부	주일 오후
전갑영 집사	윤경태 장로	가정예배

예배 위원

9월	1부	2부
안내	문미경	최승태 유경순 김영덕B
헌금	김신영	이대기 우말순 김영화 박선진

헌금자 명단

(온라인 헌금 농협 301-0134-5884-21 강서제일교회)

십일조	김명순 김복례 김성태(김득복) 김영화 김춘예 김현지 김형문(신승희) 김형순 박영미 연윤희 오진솔 유남순 이상혁(송미숙) 임진수(정해순) 정충호(윤태향)
감사헌금	김복례 김성태(김득복) 김영덕A(이영희) 박삼강자(가정) 엄상희 연윤희 유남순 유병용(황하연) 유진원(유예원) 윤진태(이기숙) 윤태오(김현아) 윤태향(정충호) 이상혁(송미숙) 임진수(정해순) 정규식(이석란) 정충호(윤태향) 조항훈(정근영) 무명1 *자녀소원: 김성학(류윤영)
교육헌금	김영덕A(이영희) 유경순 임진수(정해순)
구역헌금	유초 중교
선교헌금	청년부 김복례 김순천(연윤희) 김순천(연윤희) 김홍엽 박삼강자(가정)
구제헌금	심창보(유호영)

주일 오전예배 설교요약

“주님을 신뢰하라!” (시55:1~8)

오늘 본문은 다윗의 비탄시로, 원수들에게 압제를 당하고 있을 때에 하나님께 간절히 아뢰며, 구원을 호소하는 내용입니다. 오늘 본문을 통해 주님을 신뢰하는 자는 어떻게 살아가야 할지를 살펴보기 원합니다.

1. 진정한 문제 해결은 오직 하나님께만 있습니다.

2절은 다윗의 처한 심정을 소개합니다. 복잡한 감정으로 마음이 편치 않고, 흔들리고 있는 모습입니다. 다윗은 자신의 아들인 압살롬의 반역으로 어려움과 고통을 겪고 있었습니다. 자신의 마음을 온전히 이해할 수 있는 사람은 세상에 없고, 오직 하나님만 알고 계십니다. 우리의 아픔, 분노, 슬픔은 오직 하나님께만 부르짖어야 합니다. 하나님만이 우리의 모든 감정을 아시고, 온전한 치유의 역사를 경험하게 해 주십니다.

2. 어려울 때에 신앙의 본모습이 나타납니다.

3절은 다윗의 근심 가운데 탄식할 수 밖에 없는 이유에 대해서 말합니다. 원수의 소리와 악인의 압제가 있었기 때문입니다. 아들 압살롬과 충신이었던 아히도벨이 다윗을 힘들게 하며 큰 소리를 치고 있는 모습입니다. 인내심이 뛰어난 다윗이지만, 분노하고, 힘들어하며 자신의 감정을 표출합니다.

우리가 감당할 수 없는 고난을 만났을 때에 하나님만을 신뢰하여야 우리의 신앙을 지켜나갈 수가 있습니다.

3. 하나님의 뜻과 계획은 계속됩니다.

4절과 5절의 말씀을 보면, 다윗은 심히 아파하며, 두려워하며 떨고 있습니다. 배신으로 인해 고난과 고통을 당하고, 앞으로 닥칠 일이 공포로 다가오고 있기 때문입니다. 다윗에게는 아무런 희망이 없는 다윗을 보게 됩니다.

하지만, 역사의 주관자되시는 하나님께서 악인들을 물리쳐 주시고, 다윗에게 희망을 주십니다. 절망적인 상황에서도 하나님을 신뢰하는 자에게는 하나님의 뜻과 계획을 깨닫게 됩니다.

말씀을 마치겠습니다. 고난 가운데도 주님을 온전히 신뢰하시기 바랍니다. 주님을 신뢰하면 절망을 희망으로 바꿔주시고, 문제의 해결을 경험하게 됩니다. 주님을 신뢰하는 마음으로 기도할 하나님의 뜻과 계획을 깨닫게 되는 한 주간이 되시기 바랍니다.